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2 / 8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스님	4	실 줄도 알아야 한다
처음 마음으로 / 덕운스님	8	곧은 마음자리가 도량이다
이런생각 한번 어때요	13	채식전문 음식점을 찾아가다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16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신발 한 켤레 탐스슈즈
차 내음 가득한 시간	22	동다송(東茶頌)
사색의 뜰	25	마음을 나누는 화안시(和顔施)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8	그와 그녀의 옷장
한국의 탐	32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사랑	34	여름철 전력 아끼기
행복한척	36	바다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37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6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자를 발행합니다.
2012년 8월 1일 발행 / 통권 210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발행인 덕운/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051)898-2672~3 / 대전모임: (042)823-0770 / 경남모임: (055)266-0710 /
광주모임: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설 줄도 알아야 한다

글 • 法頂(스님)

‘한국미술 5천년전’이 미주 여러 도시에서 꽤 장기간 성황리에 열렸었다. 그 전시가 끝나갈 무렵 최순우(崔淳雨)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어떤 잡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따금 생각날 때가 있다.

미주의 전시를 보고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쪽에서도 보여 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물건도, 거기 딸린 사람도 함께 쉬어야 한다고 사양했다는 것이다. 물건이 쉬다는 것은 사람이 쉬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물건을 쉬게 한다는 말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고미술(古美術)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명언이다.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면 거기 숨결

이 통해 빛을 발한다. 한 다기(茶器)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노라면 그릇이 좀 쉬고 싶어 하는 내색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다. 그때는 다른 그릇으로 바꾸어 쉬게 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기가 지닌 특성과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기만 했던 우리로서는 우선 물질적인 충족이 제1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 억척같이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 자나깨나 중산이요, 소독 증대요, 수출 확대였다.

이런 결과 물질적인 충족은 얼마쯤 달성됐겠지만 그 반대 급부로서 비인간적인 문제가 여기저기서 잇따라 터

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두운 현실이다. 국민총생산(GNP)만을 위해 골몰했지, 국민총행복(GNH)에 대해서는 등한했던 당연한 결과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을 불러들일 만큼 걸으려는 성숙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진 외채를 두고두고 갚아야하고, 아직도 남의나라 돈을 빌리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허리를 펴 수 없는 불안한 형편이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동양의 유대인’이라는 소리까지도 들어가며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뜻이 말할 수 없이 거칠어지고 시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설 줄도 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누구의 말인지는 잊어버렸지만 ‘일만 하고 설 줄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와 마찬가지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기계도 짐승도 아닌 가치 추구의 인간이다. 그러니 순간순간 삶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수출고가 늘고 국민 소득이 크게 불었다 할

지라도, 사회나 개인의 생활에 리듬이 없고 탄력이 없다면 거기에 무슨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흡수와 배설의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병이 난다. 일만 하고 설 줄 모른다면 이미 병이 든 거나 마찬가지다. 몸이 지치면 마음에 평안이 깰 수 없다.

재벌들의 입지전(立志傳)을 들어보면 공감이가는 점도 많지만, 인간적인 매력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담배도 술도 할 줄 모르는 도학자 같은 기업주. 일에 쫓겨 잠도 체폐에 자지 못하고 가족들과 한자리에서 단란한 식사도 못한 채 차 안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할 때(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을 우러르고 존경하기에 앞서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업원들은 얼마나 쫓기고 들볶일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물은 것도 없이 저마다 인생관이 다르므로 한마디로 말할 성질의 것은 못 된다. 그러나 무슨 일을 어떻게 하건 사람답게 사는 길로 이어져야 한다. 일회적인 존귀

한 인생이 가설된 수치를 채우기 위해 그 수단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다.

선진국이 아닌 동남아 여러 나라의 근로자들까지도 이제는 얼마 동안 먹고 지낼 만한 여유가 있으면 기를 써가면서 더 벌려고 하지 않고 쉬면서 즐긴다고 한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 보면 좋은 돈벌이를 마다한 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도리어 악덕으로 몰아붙이기 쉽다. 돌관(突貫) 작업과 과외 수당에 인생을 탕진하면서 쉴 줄을 모르는 우리들의 처지와 적게 벌면서도 자기 몫의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들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보다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그들은 쫓기거나 서둘지 않고 좀 가난하더라도 의젓하게 살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 끝에 논다는 것과 게으르다는 말은 결코 동의어일 수 없다. 재생산과 재창조를 위해 쉴 줄을 아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문화가 독창적이기 보다 남의 것을 모방하고 추종하는 경향

이 짙은 것도 따지고 보면 거기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쉴 만한 여가를 가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머리를 식히면서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새롭고 바람직한 것이 창조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일에만 쫓기다보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대에 공허하고 촌스런 구호는 많아도, 뚜렷한 철학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여가가 없다는 말과 상통한다.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래 여가의 산물이었다. 노자와 장자 또는 디오게네스 같은 이들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보다는 여가를 선택, 선용하였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인간답게 살면서 그 빛을 인류 사회에 끼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 생활에 여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준 것이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으랴만 처지와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쉬지도 놀지도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다음에 가서, 또는 무엇이 되고 나서, 무엇을 이룬 뒤부

터라고 미루면서 그날그날을 쫓기듯이 바쁘게만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이 올지 더욱 큰 불행이 올지 누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르긴 해도 정년이 된 후 한꺼번에 쉬려고 한다면 그때는 쉬는 일이 도리어 무효하고 지겨울 것이다. 인생의 덧없음과 비애를 되씹느라고 쉬는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순간순간 목숨을 소모하면서 살아간다.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묘지나 화장터 쪽에서 보면 순간순간 죽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순간순간 사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일을 할 줄을 알아야 하듯이 쉬고 놀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문제는 곧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런데 대개 의 경우 모처럼 쉬면서 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도 참으로 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녹슨 문명의 덫에 걸려 무의미하게 흩어버리는 수가 많다.

제대로 쉬려면 우선 일상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피곤한 문명의 소용

돌이에서 벗어나 까맣게 잊어버린 청정한 자연의 품에 안겨보라. 마음은 텅 비우고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꽃향기도 맡아보고 흘러가는 구름에 눈을 맞추어보라.

맨발로 부드러운 발흙을 감촉해보고 흙을 매만지며 그 향기도 맡아볼 수 있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새소리나 시냇물소리에 귀를 모으고 숲길을 거닐어 보고 바닷가 모래톱에서 조개껍질이라도 주워보자. 팔베개를 하고 밤하늘의 별을 세며 동요도 불러보자.

이렇게 하는 동안 시들었던 인간의 뜻이 조금씩 소생되고 일찍이 느끼지 못한 잔잔한 평화와 창조적인 의욕이 꿈틀거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다. 살 줄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

휴식의 진짜 맛은 땀 흘려 일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명심하면서, 1982

-산방한담 중에서-

곧은 마음자리가 도량이다

글 ● 德 耘(스님)

불교에서 도량(道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이 도량이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道)를 이룬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도량(菩提道場)에서 나온 것으로 깨달음을 이룬 장소 또는 도를 이룬 장소를 가리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집착하여 꼭 그곳을 찾아가야만 기도와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마경에 직심(直心)이 도량(道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심(直心) 즉 곧은 마음이란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분별과 집착을 떠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곧은 마음이 바로 도량이라

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행(修行)이 있는 곳은 어디나 도량이라는 말입니다.

해인사(海印寺)를 방문하신 분들은 해인사 장경각 주련(기둥이나 벽에 장식으로 써 붙이는 글씨)에 “원각도량하 처 현금생사즉시(圓覺道場何處 現今生死即時)”라는 글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원만하게 깨달으신 부처님의 도량이 어디인가? 오늘 생사(生死)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는 이 현실 자체가 부처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곳이 원각도량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2500여 년 전 석가모니부처님이 살아 계시던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몸담아 사는 그 자리가 곧 더 없이 훌륭한 원각도량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수행하는 도량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한정짓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을 바로 원각도량(圓覺道場)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법을 크게 펼친 6조 혜능스님의 제자인 영가 현각스님의 증도가(證道歌)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재욕행선지견력(在欲行禪知見力) 이어 화중생연종불괴(火中生蓮終不壞)로다”라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의 뜻은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지견의 힘이며, 불 속에서 연꽃이 피니 끝내 시들지 않는도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욕망 가운데 있으면서 참선

을 하는 지견의 힘”이란 집에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부는 꼭 출가를 해야만 성취할 수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배움에는 재가(在家)도 없고 출가(出家)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가에서 공부하면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가 많으므로 부처님이 방편으로 출가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본은 재가나 출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공부해나가느냐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재가에서 참선(參禪)을 닦은 사람의 지견(知見)의 힘은 마치 불꽃에서 피는 연꽃이 시들지 않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꽃은 물에서 나는 것이므로 물 밖에 내놓으면 죽어버리고 말지만, 불속에서 연꽃이 필 것 같으면 이것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참으로 발심(發心)하여 경계에 부딪혀 가면서 공부를 성취한 사람은 불꽃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아 영원토록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어수선하고 혼돈스런 세상에서 자기중심이 없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고 맙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나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도량인 것입니다.

다음은 선문염송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법(法)은 항상(恒常)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의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법(法)은 무상(無常)합니까?”

부처님께서서는 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의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온갖 지혜를 갖추셨거늘 어째서 대답하지 못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모두 희론(戲論, 놀이삼아 의논하는 것이니 부질없이 희롱하는 아무 뜻도 이익도 없는 말, 허구적인 관념을 실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마음작용)에

불과 하느니라.”

이것은 선문염송 제1권 29의 부대(不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세상잡사의 희론 속에 몸과 마음을 묻고 살아갑니다.

세상잡사의 조그만 일들의 옹고그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것인지…….

의도가 물은 세상이 항상 하고 무상한 것을 안다한들 그게 자기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전에는 독화살 맞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살을 맞은 사람이 그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으며, 그 화살이 어떤 종류의 것이며, 그 독이 어떤 성분인지 알기 전에는 치료받지 않겠다고 우긴다면 그는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이 항상(恒常)한지 무상(無常)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사 없는 도리를 체득하여 이 삶속에서 대

자유한 삶을 누리는데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천여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야산 정상에서 설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야산 동북쪽에는 당시 가야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동쪽으로는 네이란자라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서 산 아래를 가리키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보아라!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온통 화염 속에서 휩싸여 타오르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눈이 불타고 있다는 뜻이다. 그 눈에 비쳐지는 대상들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도 그 대상을 향해서 불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길에 의해 타오르고 있다. 어리석음의 불길에 의해 타오르고 있다. 생로병사 온갖 근심 걱정의 불길에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잡아함> 제8권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통 타오르는 불바다와 같을 것입니다. 온갖 욕망과 걱정, 그리고 무지(無知)로 인해 아귀다툼을 벌이며 내 것, 내 주장, 내 욕심만을 앞세우려하니 인생살이가 끝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에 나와 기도하고 수행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길을 불법(佛法)속에서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절집에서 들어와서까지도 세간의 시비심(是非心)을 놓지 못하고 삼보를 비방하고, 법회(法會)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절집의 이런 저런 일들을 간섭하고, 도반들 사이의 화합을 깨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절집 일주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입차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解)”

이 뜻은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알

음알이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속의 시비심을 털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집 문을 들어서라는 뜻입니다. 절은 청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봉사하는 곳이지 쓸데없이 시비하고 음해하고 간섭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많은 신도 분들이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봉사하는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청정한 도량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법정스님의 산방한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며

하나 같이 인생은 짧다고 한다. 어물어물하고 있을 때 인생은 곧 끝나버린다는 것, 후딱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나 버린다는 것이다.”

인생은 하찮은 일에 시비하고 간섭할 만큼 긴 시간이 아닙니다.

무상, 신속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진실한 삶을 위해, 구경의 깨달음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6년 음력 6월 초하루
(2012년 7월 19일) 범문

채식전문 음식점을 찾아가다

글 • 박창근(가수)

수년 전 춘천에 갔을 때 구봉산 휴게소 옆에 있는 ‘채식사랑 뷔페’를 찾아간 적이 있다. 한창 채식에 관련된 이것저것을 수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찾게 된 채식음식점이라 많은 것을 체험해보고 경험하고 싶어 했는데, 주인공으로 보이는 허연 머리를 길게 늘어 뒤로 묶은 어른 한 분이 곁으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글썽이 얼굴을 보며 “쉽지 않은 이 길을 가는 것 보니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네면서 당신의 지난 인생을 이야기했다.

그는 젊어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해봤다고 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부인도 참으로 인상 깊은 얼굴이었는데 자신을 이끌어준 아내라고 소개했다. 나이 50이 넘어서야 생명과 생명의 관계를 깊이 사유하게 되었다는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해 채식음식점을 시작하면 다 망한다면서 스스로의 명상과 깨침을 위한 하나의 장으로 보고 있는 듯했다.

그때는 한 사람당 팔천 원이었는데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다. 한 두 개의 음식에는 우유가 약간 첨가된 음식이 있다. 대체적으로 약간 달콤한 것도 있는데, 음식점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뷔페가 아닐까 한다. 참고로 글썽이의 집에는 설탕이 없다. 상대적으로 채식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당도는 여느 음식점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생활속에서 찾아온 작은 감동, 나를 기쁘게 해준 친구와의 추억 이야기, 맑고 향기로운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그리고 독자 참여 지면을 늘여나가겠습니다.

- **모집 안내**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귀중한 책 한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보낼 곳** :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이메일 : clean94@daum.net

과 비슷할 수 있을 테니 참고하시라.

춘천에 가보고자 하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라면서 기왕에 채식전문 음식점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전국의 채식요리점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글쓴이의 경험으로는 집에서 가볍게 해먹는 현미와 된장 그리고 몇 가지 채소들이 빠지지 않는 단순하고 소박한 채식요리가 제일이다. 그러나 바깥 생활을 해야만 하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이따금씩 새로운 다른 음식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몇몇 검증된 채식음식점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따금씩 채식가들에게도 열큰한 중국집의 짬뽕과 자장면이 그리울 때가 있다. 글쓴이는 집에서 가끔 생협에서 나오는 춘장을 사서 국수사리로 자장면을 만들어 먹곤 하는데, 기억에 남는 곳이 인천공연을 갔을 때의 차이나타운 안에 위치한 '태화루'였다. 짬뽕국물 맛

이 시원하고 독특한 향이 좋았고, 자장면 또한 짜고 달지 않아 좋았다. 여느 채식중국집이 그러하듯 채식과 육식을 병행하여 장사를 한다. 채식코스를 미리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에는 채식뷔페집이 하나 더 있는데 백운역에서 가까운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식당인데 이곳에는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취급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해준다. 음식점 공간을 친환경공간으로 설계해 맛을 더해준다.

또한 얼마 전 대구MBC 방송 취재로 알게 된 범물동 동아쇼핑 맞은편 농협 건물 지하의 유기농 채식 뷔페 <이플>이 있다. 원래 이곳은 유기농매장이었는데 유기농을 취급하고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채식음식점이 되고 말았다는 가게 주인의 말씀이 인상적이다.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이다. 가끔 손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 나더러 노래 한 곡 해달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성화이다. 한끼 뷔페식사로 하루 종일을 무료로 제공되는 유기농 녹차, 유기농 커피를 마

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용한 카페 겸 식당이다.

대구에는 중구 봉산동에 있는 <보리수>라는 채식한정식집도 유명한데 일반 한정식에 비교해서 비싸지 않고 맛깔스럽다. 아울러 대구에서 약간 벗어난 경산에 가면 경산 밀레오레 근처에 <청우방>이라는 중국집이 있다. 현재 운영사정상 채식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채식음식으로 주문하면 주인아저씨가 더 반가워하면서 그만의 비밀(?)을 말해주기도 한다.

한편, 얼마 전 광주공연을 갔을 때 그 장소가 5·18기념공원이었는데 그곳에 세워진 기념문화관 안에도 <자연생활 채식뷔페>집이 있었다. 공연을 주최한 풍경소리의 사회를 보신 목사님께 그곳이 공원 측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맛을 본 몇 군데의 채식식당과 채식빵가게 그리고 여의도 쪽의 채식요리가 가능한 중국집이 있었는데 개인적 경험으로는 아무래도 가격을 비교해보면 지방 쪽이 아직까진 더 만족할 만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검증된 전국의 채식식당 목록을 알 수 있는 채식사이트를 알려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 참고하셔서 구경해보시기 바란다. 스스로의 삶의 진정성을 지켜내며, 그 울림을 스스로 귀담아 들으며, 오늘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엮여지는 그 순환의 고리의 중심에 스스로를 올려놓아 자신을 담금질하며 늘 깨어 있으며 생의 벽들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한국채식연합 <http://www.vege.or.kr>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채식모임 <http://cafe.naver.com/eatpeace.cafe>
한울뱃채식나라 <http://www.hanulvut.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신발 한 켤레 탐스슈즈

글 • 변택주



빛을 드릴 게요. 탐스 설립자 블레이크마이코스키

인권은

너무 가깝고 너무 작아
눈에 뜨지 않는 내 곁에서 비롯된다.

학교나 공장,
농장이나 사무실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날 목숨이 살아 숨 쉬는 삶터.

이곳이
모든 남녀, 아이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정의, 기회, 존엄성을 얻으려는
바로 그곳.

- 1953년 3월 27일 엘레노어 루즈벨트 유
엔 연설문에서

착한 슈즈 TOMS

2006년 여름, 아르헨티나로 휴가를 갔던 한 젊은이는 맨발로 수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는 어린이들과 맞닥뜨린다. 세상 어딘가에 가난한 아이들이 있다고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마주친 현실은 참혹했다.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고 터진 아이들 발에서 고름이 흘러내렸다. 열대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북부 인디아처럼 규산 성분이 강한 화산토 지역에서는 상피병 Podocornis 또는 코끼리 발이라고 불리는 질병에 감염된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발이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 참을 수 없이 아픈 이 끔찍한 질병은 신발만 신으면 막을 수 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젊은이는 아예 신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다. 현지 친구 한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제화공을 설득해 아르헨티나 민속신발 알파르가타Alpargata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심플하고 편안한 캔버스 아퍼 신발 250켤레를 들고 미국으로 돌아와 'Shoes for Tomorrow',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신발회사를 세운다. 그 젊은이가 바로 자신을 Chief Shoe Giver라고 불리달라는 블레이크 마이코스키Blake Mycoskie(37)이다. 젊은이들이 즐겨 신는 '탐스슈즈TOMS Shoes'는 신발 한 켤레가 팔리면 맨발벗은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신겨주는 가볍고 예쁜데다가 착하기까지 한 신발이

다. 2006년 설립 첫 해 1만 켤레를 팔은 탐스슈즈는 신발 1만 켤레를 아르헨티나 어린이들에게 신겼다.

작은 결함도 용납할 수 없어

탐스 사업 모델이 기존 사업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게다가 사업초반 신용카드 한계에 달하고 대출한도도 다 차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해댔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면서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 때마다 블레이크는 노트 반을 접어 한쪽에는 아주 나쁘게 돌아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은쪽에는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을 적었다. 이를테면 왼쪽에는 "신발이 하나도 팔리지 않으면 재료비와 자본금 5천 달러를 다 날린다."고 적고, 오른쪽에는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석 달 동안 많은 경험도 하고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근사한 신발은 남는다."고 썼다. 가장 나쁜 상황을 떠올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적다보니 맞닥뜨린 상황을 제

삼자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마저 어려울 때는 사무실 벽면에 “대다수 인생 실패자들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 사람”들이다. “성공은 열정을 간직한 채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잔뜩 써 붙여놓고, 그 문구들을 되뇌며 버텼다.

탐스 비즈니스 모델은 기부와 사업 결합이었기 때문에 고객과 파트너가 이 사업 성과를 믿을 수 있느냐가 열쇠였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One for One, 1:1 기부라는 단순한 모델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여행에 손님과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해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블레이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겠다는 뜻 못지않게 신뢰를 쌓으려고 많은 애를 썼다. 노드스트롬 백화점 같

은 대형유통업체에 처음 납품하고 나서, 매장을 방문한 블레이크는 납품한 신발에서 조그만 문제를 발견했다. 손님은 물론 납품처에서도 문제를 알지 못할 만큼 작은 결함. 어떻게 할까? 모두 거둬들인다면 재정에 구멍이 날 뿐만 아니라,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 초기, 실수를 스스로 나서서 알리는 일로 그야말로 제 무덤을 파는 일이었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작은 결함도 용납할 수 없다!’며 무려 6,000켤레에 이르는 신발을 모두 거둬들인다. 이 결정으로 탐스는 걱정과는 달리 소매상들 신뢰를 얻어, 성장 밑거름을 마련한다.

신발이 아닌 상징, TOMS

2006년 11월 뉴욕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던 블레이크는 옆에 앉은 여성이 탐스슈즈를 신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회사에 다니는 인턴을 빼고는 탐스슈즈를 신은 모습을 본 적이 없던 블레이크는 애써 흥분을 누르면서 말을 건넸다. “와! 그 신발 예쁜데요. 어디 건가요?” 그 여성은 금세 얼굴에 생기가 돌



너무 좋아

면서, ‘이 신발이 바로 한 켤레를 사면 신발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신기는 탐스슈즈’라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다. 이때 블레이크는 ‘탐스는 신발이 아닌 상징’임을 깨닫는다. 그 뒤 블레이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신발보다는, 신발을 신어 바뀐 ‘사람이야기’를 퍼뜨리려고 애썼다. 그 결과, 돈 들어 홍보할 힘이 없었던 초기에 AT&T, 노드스트롬 같은 큰 기업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007년 미국 국립디자인 박물관 쿠퍼 휴잇 스미소니언이 주는 피플스 디자인 어워드 대상을 수상, 디자인 철학을 인정받은 탐스슈즈 나눔 정신에 스

칼렛 요한슨, 리브타일러, 크리스틴 스투어트, 나오미 와츠, 키이라 나이틀리, 데미 무어 같은 할리우드 셀레브리티 celebrity들이 여럿 동참한다.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데이브 매튜스 밴드와 샤를리즈 테론이 만든 아프리카 자선 프로젝트 CTAOP(Africa Outreach Project)와 함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0년 9월 블레이크는 탐스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던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100만 켤레 짜 신발을 신겨줬다.

같은 해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기업 18위에 올라 애플, 구글, 스타벅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탐스. 2011년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신발이 없어 고생하는 아이들 발을 보듬어줬다.

탐스슈즈는 이제 전 세계 내로라하는 패션니스타들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가 창조자본주의 대표 사례로 꼽을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다.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지금도 탐스슈즈는 스토리로 움직이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탐스피플들이 탐스를 신고 세계를 누빈 여행 기록이 속속 올라오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졸업파티 때 모두 탐스슈즈를 신고오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여러 행사 가운데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신발 없는 하루 One Day Without Shoes' 캠페인은 한해에 단 하루 맨발로 걸으면서, 신발이 주는 소중함을 보듬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올해 4월 10일 우리나라 가로수길에서 열린 '신발 없는 하루' 잔치날에

는 비가 촉촉이 내렸다. 맨발로 빗길을 걸기에는 아직 차가운 날씨인데도 3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기꺼이 함께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린 감동스토리와 영상으로 탐스스토리는 탄탄하고 넉넉하다.

One for One 도전은 이어진다

탐스 도전은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2011년 6월 7일 런칭한 새로운 One for One은 신발 한 켤레가 팔리면 다른 한

켤레를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는 '탐스다운 탐스아이웨어'이다. 안경 하나=한 사람 시력을 찾아주는 등식인데, 손님이 안경을 하나 살 때마다 안경 하나를 주는 단순 방식이 아니다. 탐스는 눈병을 앓는 지구별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로 하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단체 Sight Giving Partners와 협력했다. 첫째 시력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두고 이물질을 없애주며, 둘째 시력 교정용 안경을 맞춰 주고, 셋째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시력 보존 시술을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만 이어지는 '아이웨어'는 올 여름에도 센트럴 포스트 압구정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인천점, 인천공항점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착한 소비를 하려는 결 고운 사람들을 기다린다.

블레이크는 처음 만든 신발 250켤레를 들고 미국으로 향할 때만 해도, 부업으로 가끔 신발을 팔고 그 수익금으로 신발 없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 뒤 신발



발아고생 많았다

사업을 하면서도 '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두려움에 수없이 잠을 깨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려고 첫 여행을 떠났을 때, 깨진 유리와 쓰레기로 넘쳐나는 마을에 살면서도 신발을 받고 뭘 듯이 좋아하며 웃고 까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사업에 삶을 통째로 걸겠다고 마음먹는다. 우리 모두, 가슴 한 가운데 블레이크 같은 자질을 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진제공: (주) 코빅스솔루션

동다송(東茶頌)

글 • 문정숙 (차문화연구가)

초의선사(艸衣禪師)

차(茶)와 선(禪) 그리고 시, 그림에 두루 능했던 한국의 다성(茶聖) · 초의선사(1786-1866)가 남긴 『동다송(東茶頌, 1837)』은 우리 차문화사를 빛나게 하는 다서(茶書)인 동시에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좌표가 되는 다도 교본이기도하다.

1830년경 초의가 만든 수제차를 우연히 맛보게 된 박영보가 「남차병서(南茶并序)」 시를 짓고, 여기에 신위까지 「남차시병서(南茶詩并序)」를 지어 차 맛을 격찬한 것을 계기로, 정조의 사위인 홍현주가 번지회를 통해 초의에게 다도(茶道)를 묻는다. 초의는 그 대답으로 『동다행(東茶行)』을 저술하였는데 후에 그 명칭을 『동다송』으

로 바꾸었다.

‘동다(東茶)’란 우리 차를 일컬음이요, ‘송(頌)’이란 우리 차의 원류에 소통케 함에 있어, 차에 관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모든 세계를 두루 섭렵하고 핵심을 가려 뽑아 운율이 있는 시의 형식으로 우리 차를 찬송하고 필침을 뜻한다.

『동다송』은 안타깝게도 원본은 찾을 수 없고 필사본들만 현존하고 있는데, 그 중 필사자가 분명한 것은 초의의 제자인 범해각안과 각별한 사제지간이었던 금명보정(錦溟寶鼎, 1861-1930)의 『백열록(柏悅錄)』에 수록된 〈동다송 필사본〉이 유일하다.

『동다송』 외에 다도의 고전으로는

이목(1471-1498)의 『다부(茶賦)』와 이운해의 『부풍향차보(扶風鄉茶譜, 1755)』 그리고 오랫동안 다산 정약용의 저술로 잘못 알려졌었던 이덕리의 『동다기(東茶記, 1785년 경)』 등이 있다.

초의의 제자인 허유가 『몽연록(夢緣錄)』에서 ‘두류산 꼭대기 아래 구름 비친 샘물을 끌어와 눈이 오는 새벽이나 달이 뜬 밤마다 차를 달이고 시를 읊으며 철저한 무소유의 수행을 실천하는 초의의 삶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빛에 감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초의의 모습을 기록한 바와 같이 초의의 삶은 청고하고 담박하였다.

중정(中正)의 도(道)

「그 속에는 현미함이 있어 오묘함이 드러나기 어려우니, 진과 정은 체와 신에서 분리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네. 체와 신이 온전하더라도 오히려 중정을 잃을까 두렵지만, 중정이라는 것은 건과 영을 아우르는데 지나지 않는다네. 차를 딸 때 그 오묘함을 다하고 만들 때 정성을 다하며 물은 진수를 얻고 우릴

때 그 중(中)을 얻어야하며, 체와 신이 서로 어우러지면 건과 영이 함께 갖춰지니 여기에 이르러 마침내 다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중유현미묘난현(中有玄微妙難顯)
진정막교체신분(眞精莫教體神分)
체신수전유공과중정(體神雖全猶恐過中正)
중정부과건령병(中正不過健靈併)
채진기묘(采盡其妙) 조진기정(造盡其精)
수득기진(水得其眞) 포득기중(泡得其中)
체여신상화(體與神相和) 건여영상병(健與靈相併)
지차이다도진(至此而茶道盡矣)

492자의 『동다송』에서 초의가 추구했던 다도관의 핵심인 ‘中正’사상을 가장 뚜렷이 인지할 수 있는 구절로서, 차 생활을 통한 달도의 경지가 잘 나타나 있다.

초의는 총평해서 말하기를 ‘반드시 정성스럽게 만든 차와 깨끗한 물로 中을 지켜 차를 달여야 한다. 차의 몸과 정신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다탕은 잘

어우러지고 여기에 이르면 다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이 글에서 다당을 의인화하여 차는 물의 정신으로, 물은 차의 몸체로 표현하고 있다. 참선하듯이 삼매의 경지에서 도달한 다도의 경지, 그 속에는 자연을 예로써 공경하는 해안과 인간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진리가 절묘한 비유로 내포되어있다.

사리가 밝고 건강한 몸을 지닌 사람이 중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잘 달여진 다탕에 투영시킴으로써, 초의는 차를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지한 마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관조하게 한다.

초의의 '중정의 도' 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재구성하면, 正은 올바름(rightness)이고 中은 알맞음(moderation)이다.

정이 기초이고, 中은 正을 근거로 한 융통성이다.

正과 中의 원리는 우리 차문화의 철학적 바탕이며 다도문화 전반에 걸쳐 널리 적용된다. 예를 들면 차 달이기에 있어서 正은 좋은 차와 깨끗한 물, 알맞은 분량과 적당한 온도와 시간, 섬세하게 다루는 솜씨이며, 中은 모임의 목적, 시간, 날씨, 손님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차의 농도를 조절함이다.

다도(茶道)를 행하는 마음

차는 범어로 '알가'라고 한다. 알가란 외물에 대한 온갖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다도를 행하는 마음은 이러한 품성을 닦고자 함이고, 외물에 대한 편견된 지식과 탐욕으로 녹슬기 쉬운 정신과 육체를 맑게 하고자 함이다. 찻물이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동다송』을 노래하듯 암송하노라면 그 리듬과 운율에 취해 차와 하나가 되는 멋을 누릴 수 있으리라.

마음을 나누는 화안시(和顔施)

글 • 이연순

아무리 하찮은 나눔이라도 그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심佛心도 변변찮은 내가 화안시를 작정한지 햇수로 4년쯤 된 것 같다. 불교대학 강의시간에 법문을 듣던 날이었다. 불교경전 잠보장경에 나오는 가진 돈이 없어도 남에게 일곱 가지나 베풀 수 있다는 '무재칠시(無財七施)'를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가 그것이다.

나도 늘 보시를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남들처럼, 한 번쯤은 기부한 것처럼 기부해보리라는 생각을 갖곤 했다. 돌아보니 보시랍시고 초과일 날 연등 켜고, 부처님 전에 갔을 때 불

전 얼마씩 넣는 것 말고는 내놓을만한 게 하나도 없다.

스님 말씀이 보시란 꼭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보시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내 나름대로의 보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내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계속할 수 있는 보시는 뭘까? 다행히 우리 가족의 핏속에는 남을 웃기는 유전자를 타고 났는지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유머러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도 어릴 때부터 명랑하다, 잘 웃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삶의 오르막

7월호 25쪽 밑에서 5~4행 '카테킨 성분이 산화효소에 의해'를 '카테킨 성분의 산화효소인 Polyphenol Oxidase가' 로 수정합니다.

이 힘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리도 해맑았던 웃음이 사라지고 덤덤한 표정이 되어 버렸다.

강물은 항상 그곳에 있기에 어느 때나 같은 물 같지만, 사실은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날마다 그 날이 그날이고 같은 시간 같지만 늘 한결같지는 않다.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놓여 있다. 오르막길을 통해 뭔가 삶의 뼈근한 저항 같은 것도 느껴봐야 새로운 삶의 의지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내게 허락된 시간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미소 먼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화안시를 생활화하자고 마음먹었다. 남을 위한 보시로 시작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었다. 남에게 환한 미소, 기분 좋은 말을 하다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싱글벙글하게 되었다.

교양이나 행동, 말씨, 마음 씀씀이

가 안에서 배어 나와야 아름답듯이 밖에서 꾸민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처럼 웃는 얼굴이나 말도 가식적이면 안 된다. 꽃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듯 진정성이 담겨있는 화안시가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즐겁고 행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유유상종이란 말을 많이 쓴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과 인연이 맺어지는데는 서로 영혼의 주파수가 공명한다는 것이다. 선을 쌓아 선의 과장을 가지면 착한 이를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고, 감사 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긴다거나, 웃을수록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고단한 삶에 어디 웃을 여유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의 대상들은 천지사방에 널려 있다. 짧은 유머 한마디로 서로 간에 긴장을 없애주고 친밀감을 준다. 웃으면서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는 일이다.

법정스님의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지.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전부 말해 버리면 말의 의미가,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는다. 라는 말을 식탁위에, 화장실에 걸어두고 적당히 병행해서 오버하지는 말자 했다.

얼마 전에 '행복속의 행운'이란 짧은 글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행운의 네 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무심코 밟고 지나친 세 잎 클로버의 의미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행운'을 의미하는 네잎클로버, 그리고 '행복'을 의미하는 세 잎 클로버. 수많은 행복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행운

을 찾듯이 우리는 늘 찾기 힘든 행운만을 찾는다. 행복 속에 행운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행운을 만든다는 사실을 안다면 행운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하자.

진흙 속에서도 고고한 연꽃이 피듯 아름다운 세상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볼 줄 몰라서, 가까이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유머가 백마디 날선 말보다 더 강하고 긴 울림을 남긴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다보면 행복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연순 님은 광주에 사는 독자로서 한국 문협, 광주 문협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길상사에 들렀다가 길상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무척 부러웠으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투고하셨습니다.

그와 그녀의 옷장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비정규직도 많고, 청년 실업자들도 많은 세상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3월의 비정규직 비율은 47.8%, 833만 명이라고 합니다. 고용되어 일을 하는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겁니다. 청년 실업률도 높습니다.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6%였습니다. 전체 실업률인 3.4%보다 청년실업률이 세 배나 높습니다.

그렇지만 TV나 영화, 대중음악 같은 대중문화에서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해 보이고 없어보여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TV에 자주 나오는 배역

은 재벌 2세나 정규직 혹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돈과 외모, 성격까지 모두 갖춘 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 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자가 나오거나 주목 받는 경우는 다큐멘터리나 소수의 대중문화 작품들뿐입니다.

그 외의 대중문화에서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자는 잘 나오지도 않고 어찌다 나올 때면 인생의 패배자, 루저(Loser)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이성복의 시처럼 우리는 모두 억지로 눈 감고 아무 것도 보지 못한 척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녀의 옷장〉 같은 작품을 만나면 일단 반갑습니다. 코믹 노동 옷니버스(옴니버스가 아니라 옷니버스입니다)극을 표방하는 〈그와 그녀의 옷장〉은 바로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극단 결판의 작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활동하는 극단 결판은 2005년에 창단한 젊은 극단입니다. 배우도 젊고, 연출도 젊고, 스텝들도 모두 젊습니다. 그

젊은 패기로 이제는 별로 말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삶과 문제점을 담은 작품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창작집단입니다. 〈그와 그녀의 옷장〉 역시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연극이지만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노동 극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숨 막히게 보여주거나, 도식적으로 그리지 않고, 노동해방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 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입는 옷과 옷장을 통해 드러내고 이야기를 끌어감으로써 참신하게 다가옵니다. 이야기는 옴니버스 극의 형태를 띠고 세 개의 에피소드를 이어갑니다. 무대에는 큼지막한 옷장과 상자 같은 의자 몇 개만이 놓일 뿐입니다. 배우는 겨우 여섯 명뿐이고 그들이 계속 배역을 바꿔가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함께 아파트 경

비원으로 일하는 노인 강호남과 김영광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식당이 용역화 되면서 정리하고 되어 싸우고 있는 강호남의 부인인 오순심의 이야기이며, 세 번째 에피소드는 노동자가 된 강호남과 오순심의 아들인 강수일의 이야기입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가족 구성원 한 명씩이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노동과 애환을 보여주는 데극의 제목대로 그들이 입는 옷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강호남과 김영광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입는 모자와 점퍼가 중요하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오순심이 입는 투쟁 조끼와 아들 강수일이 입는 양복과 또 다른 옷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강수일과 심순애가 입는 노동조합의 조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옷을 통해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대략의 나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돈이 많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패션 감각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쁘고 세련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를 한 눈에 구별하는 것도 바로 옷입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정장 차림으로 일을 하는데 반해,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푸른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옷에서부터 계급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작업복보다는 흰 색 와이셔츠를 입고 싶은 이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할 때 입는 옷은 아무래도 패션보다는 고용의 상징이고, 작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뒤에는 넥타이를 풀고 싶고, 작업복을 벗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이 옷을 강제로 벗게 되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고 허름한 작업복일지라도 결코 벗고 싶지 않고,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문제로 싸우는 이들이 투

쟁 조끼를 벗지 않는 것도 다시 작업복을 입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그녀의 옷장〉은 그런 노동자들의 삶과 현실을 유쾌하게 담아냅니다. 이극에 담긴 노동자들의 현실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세대를 초월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고민일 수밖에 없고, 고통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극의 인물들은 의리를 지키고, 젊은 날을 떠올리며 웃고, 사랑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덕분에 이 작품을 보면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몇 번은 크게 웃고, 몇 번은 빙그레 웃으며 재미있게 보게 됩니다. 삶은 부분적으로는 비극이어도 전체적으로는 희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작품을 보고 나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 아프고, 화가 나는 일이 날마다 너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는 아직도 착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삭막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감하고 다정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재치 있는 유머감과 연출, 따뜻한 시선 덕분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해 밀양여름공연예술 축제에서 젊은 연출가전 대상과 연출상을 받을 만큼 기존의 연극계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3년간 꾸준히 계속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고 7월에 서울 대학로 게릴라 극장에서 열린 16일간의 공연은 거의 모든 좌석을 다 채울 만큼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연극이 상연된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연극은 영화나 드라마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글 • 박희준_ 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계곡에 있는 양양 진전사지(襄陽陳田寺址)는 우리나라에 선종을 들여온 도의선사가 8세기경 창건한 절로 현재 전해지는 전각은 단 한 채도 없다.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인하여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전사가 폐사될 때 이 절의 스님들이 절터 위에 있는 연못에 범종과 불상을 던져 수장하고 절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삼국유사를 쓴 일연스님이 14세에 이곳 진전사로 출가했다고 한다.

현재 이 절터에는 국보 제122호인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보물 제439호인 진전사지부도가 남아 사역을 지키고 있다. 최근에 새로 진전사를 중창하여 전

각 2동을 짓고 스님 몇 분이 계시지만 사역을 찾는 사람이 드물어 계곡의 물소리만 들려울 뿐 늘 아늑하고 조용하다.

진전사지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삼층석탑인데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의 모습으로, 2층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1층 기단에는 날아갈 듯한 천인상(天人像)이 새겨있고, 2층 기단에는 구름위에 무기를 들고 앉아있는 8부신중(八部神衆)이 새겨져있다. 탑신의 몸돌과 지붕돌을 따로 만들어 올렸고, 1층 몸돌에는 4면에 각각 다른 모습의 불상을 조각했다. 2층과 3층의 탑신은 1층의 탑신과 비교하여 낮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더해준다. 지붕돌은 신라시대 대부분의 탑이 그러하듯

처마의 네 귀퉁이가 살짝 치켜 올려져 있어 경쾌한 모습을 더해주며, 지붕돌 밑면에는 5단씩의 층급받침을 두었다. 3층 지붕돌 꼭대기에 있어야 할 머리장식(상륜부)은 받침돌만 남아있고 모두 훼손되어 없어졌다.

진전사지 삼층석탑을 이야기 할 때 진전사지부도를 빼놓을 수 없다. 진전사지 부도의 다른 이름은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도는 한반도에 선종을 들여와 진전사를 창건한 도의선사 부도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도탑은 일반적으로 부도탑과는 다르게 석탑의 형식을 도입해 석탑처럼 2층의 기단을 세운 후 그 위에 양련을 새긴 8각의 탑신 받침과 8각의 탑신을 올렸다. 탑신에는 한 면에 문모양을 새겼을 뿐 다른 장식이나 꾸밈은 없다. 지붕돌 역시 8각으로 만들어졌으며 석탑의 지붕돌과 마찬가지로 처마를 살짝



진전사지 삼층석탑

진전사지 도의선사 부도

들어 올려 경쾌한 느낌을 담았고 층급받침은 없다.

진전사의 삼층석탑과 도의선사 부도는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 지붕돌 처마의 치켜 올림이 경쾌함을 더해주는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탑과 부도로써 지금도 진전사에 주석하는 스님이 매일 청수와 향을 올리고 있다.

한여름 조용한 계곡에 자리 잡은 진전사지에 들러 문화체험을 해보심은 어떨까?

여름철 전력 아끼기 외면하지 말고 가정에서 함께 해주세요.

글 • 김소영(자연사업 팀장)

지난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여름철 엄청난 양의 전력소모와 이를 대비하지 못해 예비전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지독한 무더위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여름철에는 냉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이 사실인

데요. 지난해 사태를 두고,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모두가 에너지 절약 실천에 참여하여 함께 예방하고,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입니다.

01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 전기냉방기기 사용을 줄여주세요.
- 여름철 전력피크의 주 원인중 하나인 냉방기기로 인한 전력부하는 국가위기를 초래합니다.
- 일반적으로 에어컨 한 대의 소비전력은 선풍기 30대의 소비전력과 같습니다.
- 특히, 지나친 냉방기기의 사용은 단계적 누진세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되며, 실내의 온도차가 5℃ 이상 이면 신경통,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02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 전기흡혈귀라고 불리는 대기전력으로 가정의 소비전력이 6%나 낭비됩니다.
- 대기전력은 플러그를 뽑아둘 때 같이 기기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낭비되는 전력입니다.

03 실내온도는 26℃이상으로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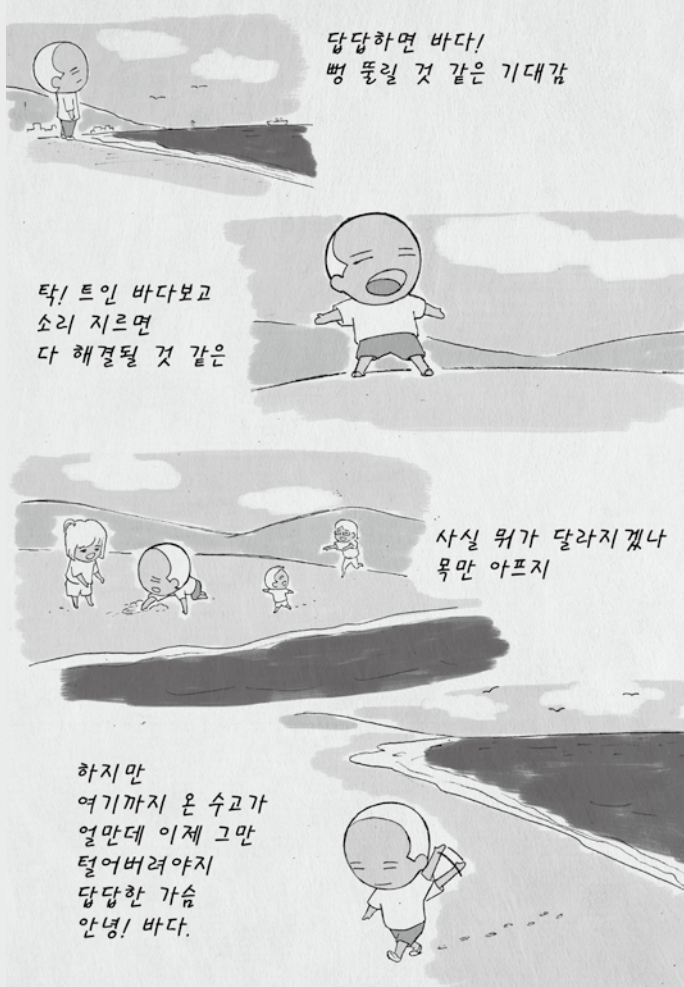
- 적정 냉방온도를 유지하세요.
- 여름철 마다 반복되는 전력위기의 원인 바로 냉방으로 인한 전력낭비였습니다.
- 냉방 시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고, 적정냉방 온도 준수로 여름철 아토피 · 호흡기 질환 예방 등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 적정 냉방온도(26℃)를 위해 2℃만 높여도 약 14%의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너지 관리공단]



바다

정태경



중앙모임 (02-741-4696~7)

법정스님을 그리며 공양 나눔 후원을 위한 맑고 향기로운 광주 음악회 성료

(사)맑고 향기롭게 주최, 광주모임(지부장 고현) 주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협찬으로 진행한 “법정스님을 그리며 공양 나눔 후원을 위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7월 7일(토) 오후 4시 광주 KT센터 3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광주지역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에는 이사장 덕운스님을 비롯하여,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무상스님, 선암사 상명스님, 법일스님, 증심사 주지 연광스님, 연화사 주지 명신스님,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중앙모임, 대구모임 관계자, 광주모임 회원등 500여명의 대중이 함께하였습니다. 이 날 음악회에서는 법정스님의 글과 말씀을 되새기며, 본모임의 취지와 광주모임 창립 15주년을 치하하고, 공양 나눔의 집 개원을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악회에는 범흥스님의 '무소의 뿔처럼' 미황사 금강스님의 '시낭송', 청심행보살 '수인무',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의 '무소유의 노래', '홀로 사는 즐거움' 등 법정스님의 글을 발제한 낭송과 노래말로 법정스님을 그리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부터는 '광주 공양 나눔의 집' 개소식 테이프 커팅 식에는 이사장 덕운스님, 고현 광주지부장, 김웅중 이사, 이금지 이사, 중앙사무국 상근활동가 모두 참석하였으며, 대구모임에서는 이춘식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상근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이사장 덕운스님께서서는 광주모임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해온 노고를 치하하며, 공양 나눔의 집 개원식과 더불어 광주 호남지역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더욱 더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공양 나눔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식이 옷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공양 나눔 쌀, 물품 후원 : 광주 동구 지산동 709-45 지하. 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

만촌 나눔 센터 개원 및 마을 경로잔치 열어

지난 7월 14일(토) 오전 10시 30분 '대구모임 부설 만촌 나눔 센터' 개원식과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모임 사옥 옆 놀이광장에서 진행된 개원식과 경로잔치에는 본모임 이사장 덕운스님, 동화사 사회국장스님, 대구모임 이희



주 지부장, 이금지 이사, 중앙·광주·대구 사무국 관계자, 회원들과 지역 어르신 80여명, 지역 청소년 30여명이 참석하여 나눔 센터 개원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사장 덕운스님은 '선행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투자라 하며, 특히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지역으로, 매키투기만의 만촌 나눔 센터 또한 매키투기 향기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로써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회원님께서도 만촌 나눔 센터 활동이 행복은 두 배로, 슬픔은 반으로 나누면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승가원 장애아동들과 함께하는 '손에 손잡고' 캠프

여름방학을 맞이한 승가원 장애아동들과 청소년 봉사자들이 손에 손잡고, 원내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꽃과 나무와 숲을 벗 삼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이 나들이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캠프의 취지는 승가원 아동들의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일상생활 능력 및 자기 결정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주제로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도 여름방학에 장애아동과 함께함으로써 장애인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 정 : 8월 19일(셋째 일)
- 시 간 : 오전 9시 30분 집결 ~ 18시 도착
- 장 소 : 경기도 포천시 평강 식물원
- 참석 인원 : 장애아동 24명, 청소년 봉사자 20명, 성인 10명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숲기행

8월 4일, 춘천 오봉산 청평사

9월 1일, 치악산 계곡, 구룡사

8월 숲기행은 춘천 소양호에서 청평사를 바라보면 절을 감싸고 있는 기암괴석의 산을 볼 수 있는 오봉산입니다.

9월 1일 숲기행 예정지는 치악산 계곡과 구룡사입니다. 치악산의 본래 명칭은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서 적악산(赤岳山)이라 불렀으나 뱀에게 잡힌 꿩을 구해준 나그네가 그 꿩의 보은으로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에서 치악산의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하는데, 치악산 계곡은 법정보호종인 독종개와 천연기념물 259호인 여름치등 다양한 수서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구룡사(龜龍寺)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위치한 절로 치악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라의 고승 의상(義湘)이 668년에 세웠다고 전해지며, 창건 당시 이름은 구룡사(九龍寺)였던 것을 조선 중기 이후부터 '아홉 구(九)자'를 '거북 구(龜)자'로 고쳐 써 오늘에 이른다고 합니다.

9월 숲기행 참가를 원하는 분은 8월 6일 오전 9시부터 참가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전화 신청 후 3일 이내에 입금 하셔야 하며 유념해주세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 문의주세요.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간식, 모자, 필기구, 등산화 착용 필수
- 참가비 : 회원 20,000원 / 비회원 25,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사)매키투기
- 탑승지 안내
- 길상사 일주문 앞 : 오전 6시 40분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5번 출구 나폴레옹제과점 앞 : 6시 50분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2번 출구 컨벤션 센터 앞 : 7시 30분

녹색나눔장터 8월 26일 열려요

4월에서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매키투기 - 녹색나눔장터가 길상사 뜨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월은 26일에 열립니다. 녹색나눔장터는 비록 많은 물품이 전시되거나, 팔리진 않아도 생활속에서 문득 문득 잊고 사는 환경에 대한 고민과 녹색 순환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나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베품 시장도 함께 열리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집에는 필요 없지만, 필요한 이웃에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참여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세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 판매할 물품도 후원 받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장터 개최 15일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거나 입지 못하는 옷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도움주실 봉사자의 손길도 기다립니다. 장터를 시작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무리할 때 까지 도움주실 분도 연락 주세요. 나눔 장터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8월 10일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해야 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이웃의 재활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의료비 지원 사업 최종 선정자는 8월 10일 본모임 홈페이지와 개인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수술비와 간병비등을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한도 50%내에서 추가 지원을 해드려 고통 받는 이들의 재활에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결식이웃을 위해 밀반찬 조리해보실래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해 2가지 밀반찬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지원가구 수는 420 가구와 단체1곳입니다. 조금 힘든 일도 마다 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특히 남자 봉사자(성인, 단체 5인 이하 정도)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조리장에 남자 봉사자가 최소 3명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리장이 정말 썩~썩 돌아갈텐데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고생도 조금 덜어드릴 수 있고요.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성북구를 비롯하여 동대문구, 종로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활동시 변경사항 안내

1. 시간 변경 안내

센터 어르신들의 입장시간이 조금 당겨짐에 따라 O.T시간도 5분 앞당겨졌습니다. 기존에는 봉사활동 입력 시간을 참여한 봉사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 등록해 드렸지만, 앞으로는 O.T 이전에 자원봉사자 수첩을 내는 분에 한해서만 전체 활동 시간을 인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 자원활동을 오시는 분은 10시 20분까지 늦지 않게 와주세요.

2. 보건증 발급 안내

음식 배식 관련 활동이라 반드시 보건증이 필

요합니다. 미소지자는 활동 역할 배치 시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 전원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안내 :

- 대상 : 위생분야 종사자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검사항목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프스 검사
- 처리기간 : 약 5일
- 발급절차 : 민원실접수 → 검사 → 발급
- 수수료 : 1,500원

3. 센터 물리치료실 이용 안내

- 정기 봉사팀, 봉사자 중 만 60세 이상 봉사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물리치료실을 천 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점심 급식 활동 함께 하실 분

매주 월요일과 첫째, 셋째 수요일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과 밥을 배식해드리거나 설거지, 잔반처리등의 활동

모회원, 진인선원 자원 활동 함께 하실 분

본모임은 매월 첫째 일요일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모회원(어르신 요양원)을, 둘째 일요일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진인선원(어르신 요양원)을 자원 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 자

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회원은 무의탁 할머니 등 80여 분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생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가 운영하며,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하며,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함께 출발합니다.

진인선원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중,경증 질환 어르신을 위한 실비 요양원과, 저소득층의 중풍,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활동 내용은 오전에는 주로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놀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시간은 오전 8시 20분에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함께 출발하여 오후 4시경에 마칩니다. 지난 5월부터 김창수 회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우건설에서 봉사자 이동을 위해 버스를 특별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면을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회원님 주소, 전화번호 변경시 연락주세요

매일 소식지를 우편발송하고 난 후 되돌아오는 부수가 20~30여부 됩니다. 대부분 이사를 가거나 장기간 방치로 인해 되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주소를 확인하여 재발송해드리고 있는데, 간혹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고 나면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회원간에는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메일을 보내주세요.

회원님의 의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고 반영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 사무국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주변에 전하고 싶으시다면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뜻으로 1994년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창간(현 통권 201호)하여 군 법당, 병원, 복지단체, 교도소등에 지속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본모임 회원, 길상사 신도님께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되시면 법정소님의 글을 비롯하여 삶의 지혜를 주는 유익한 글, 활동소식이 담긴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 친지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시거나, 공익단체(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등)에 연결해드리고 싶으신 회원님께서도 사무국으로 상담해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맑고 향기롭게'

생활 속에서 찾아온 작은 감동, 나를 기쁘게 해준 친구와의 추억 이야기, 맑고 향기로운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원고가 채택될 시 귀중한 책 한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곳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편집국 / 이메일 : clean94@daum.net

더욱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금액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만 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등 후원자님의 기쁜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에는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본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기부증 영수증 발급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본회 회원이 아닌신분은 후원하신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해피빈 - 온라인 콩이 만드는 행복한 기부

세상에는 많은 콩이 있습니다. 그 많은 콩 중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콩이 바로 '해피빈콩'입니다.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도 해피빈을 통하여 온라인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콩 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커지는 법. 언제라도 소외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해피빈을 통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의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 네이버 해피빈 :

<http://happylog.naver.com/clean94.do>

8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8월 2일(목),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 활동/매주 목-8월 2,9,16,23,30일/금-8월 3,17,24,31일/김치 -둘째 목요일(9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매주 월요일(8월 6,13,20,27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8월 1,15일) 오전 10시~

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둘째, 셋째 일요일(8월 12일,19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첫째 일요일(8월 5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8월 12일) 오전 8시 2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 8월 10일
- 승가원 장애아동들과 함께하는 '손에 손잡고' 캠프/ 8월 19일(셋째 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의류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 /8월 26일 /오전 11시~오후 3시/ 길상사 뜨락
- 숲기행 /8월 4일/ 춘천 오봉산 청평사



대구모임 (053-753-8883)

8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녹음봉사/매주 월요일-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7시(예정)
- 룸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 정리,말벗)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8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 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 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

하세요/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8월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 배달
- 나눔 공양의 집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매월 둘째 수요일 2시/사무실
후원 : 농협 609-02-283017 / 김영봉

부산모임(051-898-2672~3)

8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대전모임 (042)823-0770

정기 활동 안내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지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6/ Fax:(02)3672-5947

2013년도 대학입시 100일 기도 안내

- 입재일: 2012년 8월 1일(수) 오전 9시 50분
 - 회향일: 2012년 11월 8일(목) 오전 8시 시작 ~ 오후 5시 40분
 - 장 소: 극락전
- ※ 100일 기도 기간 중 입시 특별기도가 매일 극락전에서 오후 2시~4시까지 법사스님을 모시고 병행됩니다.

다라니 기도

- 일정: 9월 1일 (오후8시 ~ 10시)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정: 9월 8일 (오후9시~다음날 오전4시)
- 장소: 길상선원
- 법사: 주지스님 / 동참금: 무료
- 간식으로 죽 공양 합니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정: 9월 8일(오후8시30분~다음날 오전4시)
- 장소: 극락전
- 준비물: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동참금: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죽/과일 간식 제공)

※ 주의사항: 반드시 좌복보호대를 깔고 수행에 임하세요.

추석 합동 차례

- 일정: 9월 30일(추석날) 9시50분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5만원

백중 아미타 90일 기도 안내

지난 6월 4일 하안거 입재와 동시에 시작된 백중 아미타 백중90일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백중 초제는 7월 21일 시작되어 9월 1일 백중날 막재로 회향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불교입문 25기 안내

- 기 간 : 7월 25일 ~ 10월 10일
- 매주 수요일 / 3개월 12주 과정 / 주간반, 야간반 진행
- 수업시간 :
(주간반)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야간반) 저녁 7시 30분 ~ 저녁 9시 30분

9월 주말 선 수련회

- 일 정: 9월 셋째 주말 15일(토)~16일(일)
9월 넷째 주말 22일(토)~23일(일)
- 참가비: 5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